

미국 고용보고서: 8 월 고용 16.2 만명 증가, 수정치 반등에 인상 논거 강화

2026.09.04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미국 8 월 고용, 냉각 서사를 뒤집다 — 노동시장 재가속과 인상 논거 강화

미국 8 월 비농업 고용은 +162,000 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기록했다. 최근 12 개월 평균 +31,000 명, 3 개월 평균 +71,000 명을 모두 크게 웃돈다. 더 중요한 건 수정치다. 직전 두 달(6~7 월) 합산 고용이 55,000 명 상향 조정됐고, 그중 7 월치는 -23,000 명에서 +21,000 명으로 부호 자체가 뒤집혔다. 지난달까지 이어지던 '고용 증가세가 사실상 멈췄다'는 진단은 이번 수정으로 통계적 근거를 잃었다.

가구 조사도 같은 방향이다. 실업률은 4.1%로 보합이지만, 경제활동참가율(61.6%, +0.2%포인트)과 고용률(59.1%, +0.2%포인트)이 함께 오른 결과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 분모가 줄면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장에 들어온 인구를 고용이 충분히 흡수하면서 유지된 보합이라는 뜻이다. 총노동투입을 보여주는 총주당근로시간 지수도 +0.3% 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도 34.4 시간으로 소폭 늘어, 일하는 사람 수뿐 아니라 실제 노동시간까지 함께 확대됐다.

다만 개선의 폭 자체는 넓지 않다. 250 개 산업 기준 확산지수는 55.6 으로 증가 업종이 절반을 다소 웃도는 수준에 그친다. 정보산업은 8 월 한 달 -23,000 명으로 감소폭이 확대됐고(7 월은 +5,000 명 증가), 금융업은 7 월과 8 월 두 달 연속 -11,000 명씩 줄어 되돌림 없는 지속적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 교육(+42,000 명)은 전월 감소분을 대체로 상쇄한 계절적 되돌림 성격이 강하고, 레저·숙박업은 8 월 +62,000 명 늘었는데 이 중 약 21,000 명은 7 월 -21,000 명 감소를 되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되돌림·계절 요인을 걷어내도 순증분은 여전히 12 개월 평균을 웃돌아, 이번 증가가 단순한 잡음만은 아니라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이번 지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부담인 현재 국면에서 매파적 재료다. 노동수요 냉각을 근거로 완화 기대를 키우던 논리의 기반이 이번 수정과 순증으로 후퇴한 만큼, 연준의 매파적 동결 및 추가 인상 논거가 상대적으로 힘을 받는다. 다만 임금 채널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37.75 달러로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1% 늘었지만 명목 기준이라는 점, 8 월 물가지표 발표 전이라는 점, 업종 구성 변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금압력 확인'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앞으로는 9 월 고용지표가 관건이다. 지방교육·레저 되돌림 효과가 9 월엔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헤드라인 증가폭이 10 만 명 안팎으로 낮아질 수 있는데, 이를 급격한 냉각으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이 수준을 크게 밀돌거나 소급 수정이 다시 하향으로 돌아서면 이번 '재가속' 판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8 월 물가지표는 임금



채널의 실질 여부를 가릴 분수령이며, 정보산업·금융업 감소세의 지속 여부도 이번 개선이 업종 편중적인지 판단하는 핵심 변수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9-04 (이번)	8월 미국 고용은 순고용 16만 2천명 증가에 6·7월 합산 5만 5천명 상향 수정까지 겹치며 최근 두 달간 이어졌던 노동시장 냉각 서사를 데이터 차원에서 되돌렸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자리잡은 지금 국면에서는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와 추가 인상 논거를 뒷받침하는 재료로 읽힌다.
2026-08-07	7월 미국 비농업고용은 2만 3천명 감소했지만 이 수치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로 보기 어렵다. 더 무거운 신호는 5월과 6월치가 합쳐서 10만 3천명이나 하향 조정됐고, 최근 석 달간 월평균 증가폭이 14만 2천명에서 7만 7천명, 다시 2만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같은 달 실업률이 4.2%에서 4.1%로 내려갔지만 이는 노동시장이 좋아졌다
2026-07-02	고용 성장이 직전월 대비 2/3 수준으로 급락(+172k → +57k)한 가운데, 직전 두 달 수정(-74k)까지 감안하면 기저 추세는 명확히 약화; 실업률 4.2%로의 개선은 노동력 이탈(-720k)로 인한 명목 개선이며, 부문별 고용은 의료·전문직만 견조하고 대부분 정체 또는 약화.
2026-06-05	고용 견고(NFP +172k, 실업률 4.3%)로 No-Landing 재확인하되, 임금 상승 지속(3.4% YoY)은 Fed 인플레이 우려를 강화하고, 금융·운송 부문 약화 누적은 기저 성장 둔화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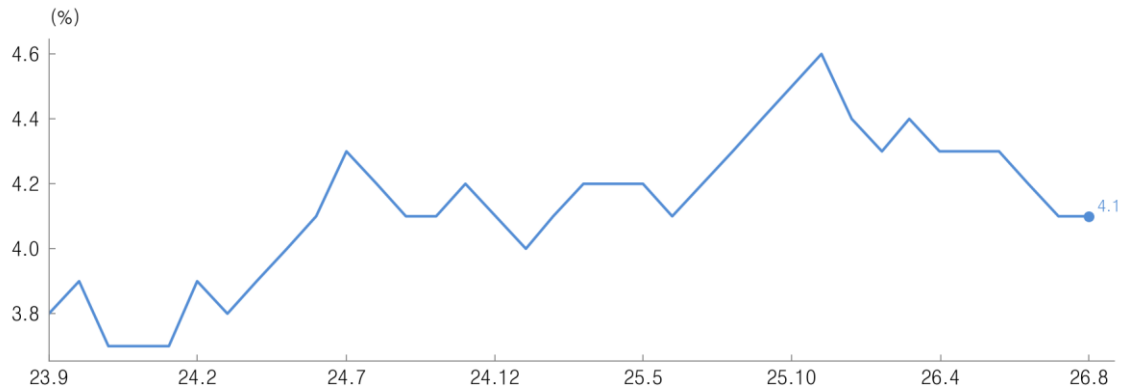
8월 미국 고용지표 핵심 수치

지표	8월 값	비교 시점 값	변화	맥락
비농업 고용 (전월비)	+162,000 명	12개월 평균 +31,000 명	평균 대비 대폭 확대	사업체조사 통계적 유의 임계치 상회
6·7월 합산 수정	6월 +31,000 / 7월 +21,000	종전 6월 +20,000 / 7월 -23,000	두 달 합산 +55,000 상향, 7월은 감소→증가로 전환	냉각 서사의 근거였던 하향 수정이 되돌아감
실업률	4.1%	7월 4.1%	보합	전년 동월(4.3%) 대비도 하락
경제활동참가율	61.6%	7월 61.4%	+0.2%p	1월 이후로는 -0.5%p 낮은 수준
고용률	59.1%	7월 58.9%	+0.2%p	전월 대비 변화는 크지 않음
정보산업 고용 (전월비)	-23,000 명	12개월 평균 -8,000 명	감소폭 확대	컴퓨팅 인프라·데이터처리 -8,000, 출판 -7,000, 방송 -5,000
금융업 고용 (전월비)	-11,000 명	7월 -11,000 명	2개월 연속 동일폭 감소	되돌림 없는 지속적 축소
레저·숙박업 고용 (전월비)	+62,000 명	7월 -21,000 명	증가 전환	전월 감소 이후 반등
지방정부 교육 고용 (전월비)	+42,000 명	전월 감소	증가 전환	전월 감소분을 대체로 상쇄
시간당 평균임금	37.75 달러 (+0.3% 전월비, +3.1% 전년비)	전월 37.65 달러	전월비 10센트 상승	명목 기준, 8월 물가지표 대조 전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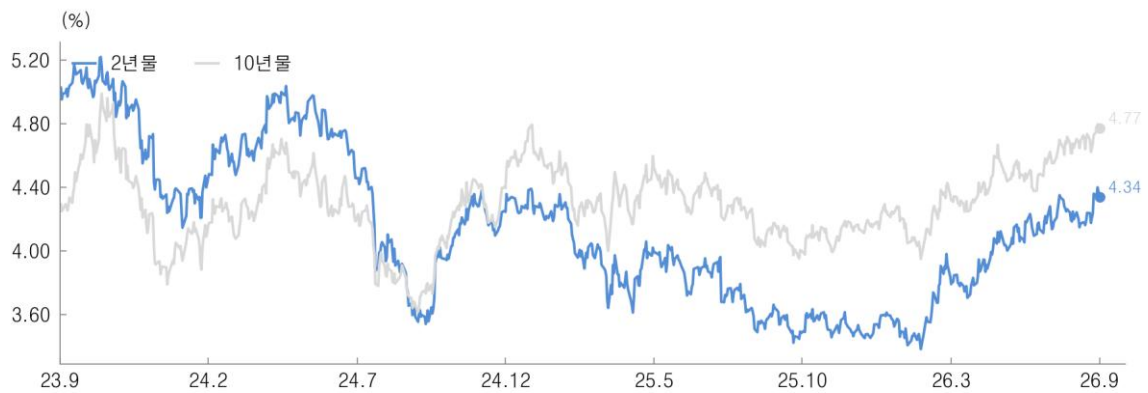
지표	값
실업률(%)	4.1
비농업고용 변화	증가 162,000
평균시급(\$)	37.75
평균시급 전월대비(%)	0.3

미국 실업률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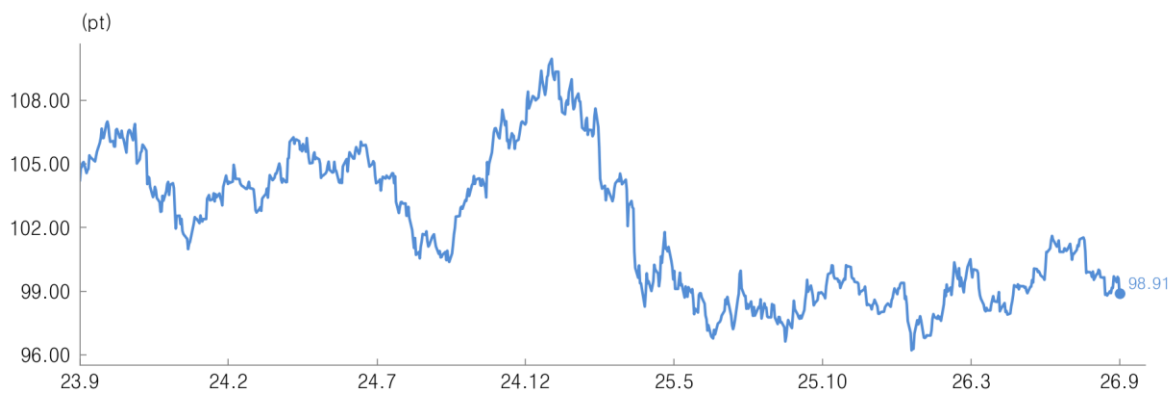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